

자료제공: 2023. 11. 29.(수)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## 보도자료

담당부서: 대변인실 언론담당관

언론담당관

이준형

2133-6205

사진없음  사진있음

쪽수 : 2쪽

신문팀장

천세은

2133-6207

### 오세훈 시장 29일(수)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 입장 청취

- 김포·구리·고양 이은 네 번째 지자체장 릴레이 면담... ‘메가시티’ 논의 확장세
- 편입 따른 분석 선행돼야... 생활권·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불편 해소 집중해야
- 오 시장 “메가시티 논의, 시민 의견 및 요구사항 최우선에 두고 논의해 나갈 것”

오세훈 시장은 11.29.(수) 오전 10시,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을 만나 서울 편입에 대한 과천시의 공식 입장을 듣는 자리를 가졌다.

○ 이번 면담은 김포시장, 구리시장, 고양시장에 이은 네 번째 경기도 지자체장과의 회동으로, 과천시는 서초구·관악구와 맞닿아 있고 전체 출퇴근 인구 중 약 40%가 서울로 출퇴근하고 있을 정도로 서울과 밀접한 도시며, 서울시 주요시설인 서울대공원,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소재하고 있다.

\* 과천시 전체 통근·통학 인구 중 서울 통근·통학 비율 : 38.3% (통계청, 2020)

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의 서울 편입은 과천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고, 지난주 진행한 대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과 공유하며 논의를 나누었다.

- 과천시는, 11.24.~28. 5일간, 과천시의 서울편입 찬·반 의견 및 이유에 대한 대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.
  - 신 시장은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 통합에 동의하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되, 자치권을 바탕으로 한 과천시민의 권리나 혜택도 계속 유지되는 방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.
- 오세훈 시장은 과천시와도 양 도시의 기본 현황 및 편입 관련 쟁점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. 또 최근 ‘메가시티’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이유로 ‘생활권과 행정구역 간 불일치’를 언급하며 시민 불편과 불합리를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.
- 교통 발달, 도시 연담화 등으로 생활권은 계속 확장돼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시민 불편이 가중됐으며 서울-인접 도시 간 상생발전과 국가 경쟁력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.
- 오세훈 서울시장은 “메가시티 논의는 단순히 행정구역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가 시민에게 끼쳐온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”며 “앞으로도 ‘메가시티’ 정책 논의는 시민 의견과 요구사항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논의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